

한국 행정학에서의 위기관리 연구경향 실증분석: 1987년부터 2007년까지의 연구논문을 중심으로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Research Trend
in the Field of Public Administration: 1987-2007

이재은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Jae-Eun Lee(jeunlee@chungbuk.ac.kr)

요약

이 논문은 1987년부터 2007년까지 한국 행정학에서의 위기관리 연구 경향을 분석하고 있다. 이 논문의 연구 목적은 기존의 위기관리에 관한 연구 경향을 실증적으로 평가하고 미래 연구를 위하여 연구 주제와 방법론을 모색하고 있다. 실증 분석 결과에 따르면,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80% 이상의 거의 대부분 논문이 1998년 이후에 쓰여졌고, 특히 전체 논문의 67.6%가 2003년부터 2007년 사이에 발표되었다. 둘째, 대부분의 많은 위기관리 학자들은 최근 규범적이고 이론지향적인 논문보다 문제 해결을 위한 처방 지향의 논문에 보다 많은 관심을 지니고 있다. 셋째,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 핵심기반 위기, 생활안전 위기 중에서, 한국 행정학에서 위기를 다루는 연구논문의 74.6%는 자연재난과 인적재난을 포함하는 재난 위기를 다루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한국 행정학에서의 위기관리 연구 경향은 주로 실증적 접근과 설문조사 보다는 기술적 접근과 문헌연구를 위주로 다루고 있다.

■ 중심어 : | 위기관리 | 연구경향 | 경향분석 | 행정학 |

Abstract

This article analyzed the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research trend in the field of public administration in Korea from 1987 to 2007. The research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mpirically evaluate the state of art in the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research trend and explore research topics and methodology for future studies. According to empirical analysis, the main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lmost all research papers over 80% have been written after 1998 and, especially, 67.6% of all papers have been published from 2003-2007. Second, recently lots of scholars are more interested in the problem solving prescriptive topics than normative and theory orientation. Third, in the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74.6% of research papers which dealt with crisis, have investigated the disaster crisis including natural and man-made disasters, among conventional security crisis, disaster crisis, critical infrastructure crisis, and living safety crisis. Finally, so far,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research trend in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have consisted mainly of the papers with more descriptive approach and literature survey than empirical approach and survey research.

■ keyword : |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 Research Trend | Trend Analysis | Public Administration |

* 이 논문은 2007년도 충북대학교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접수번호 : #090429-001

심사완료일 : 2009년 06월 03일

접수일자 : 2009년 04월 29일

교신저자 : 이재은, e-mail : jeunlee@chungbuk.ac.kr

I. 서론: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위기관리에 관한 연구의 역사는 그리 길지 못하다. 그러나 연구 역사의 일침함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행정학분야는 물론 다른 학문 분야에서도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오고 있다. 이는 1990년대 초·중반이후의 다양한 재난이 우리 사회를 위협해 온 영향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의 양적 증가가 향후 우리 사회의 발전이나 안전의 확보를 기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인지를 알 수 없다. 그것은 현재까지의 연구 경향을 분석하고 다른 위기관리 선진국의 연구 경향을 분석하여 비교하고 미래 연구 방향을 가늠해 볼 때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행정학은 그 동안 연구의 다양화와 연구 영역의 확장을 해왔다[1].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의 행정학 분야에서 오늘 날과 같은 위기관리에 관한 연구 논문이 최초로 나온 것은 20 여 년 전인 1987년이다. 당시 김형렬(1987)은 '정책집행에 있어서 위기관리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국내 행정학계에서는 최초의 연구 논문을 대학 학술논집에 발표하였다. 최초의 논문이 게재된 이후 20년이 지난 2007년까지 위기관리에 관한 연구 논문들이 상당히 많이 발표되었으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나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왔다. 향후에는 연구의 방향성 설정과 국가 사회의 위기관리 정책에 대한 기여를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연구 논문을 분석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한국 행정학계에서 위기관리에 관한 최초의 논문이 게재된 1987년을 기점으로 하여 2007년까지 20년 기간 동안의 연구경향을 살펴봄으로써 현재 위기관리 이론 연구의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위기관리 이론 연구의 방향성을 가늠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논문의 연구 범위는 행정학계 위기관리 연구논문의 범위, 논문집의 성격, 분석의 시간적 범위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먼저, 행정학계 위기관리 연구논문의 범위는 행정학 관련 분야의 대학원생 및 박사학위 소지자가 참여한 위기관리 연구논문으로 한정한다. 둘째, 논문집의 성격은 전국학회지, 지역학회지, 대학논문집, 기관논문집 등으로서 정규학술지에 국

한한다. 셋째, 분석의 시간적 범위는 한국 행정학계에서 위기관리연구 논문이 최초로 게재된 1987년부터 2007년까지로 설정한다.

II. 위기관리 연구경향 분석의 조사기준

한국 행정학 분야의 위기관리 연구경향을 분석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연구논문에 대한 실증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기준은 기존 연구경향 분석을 시도한 선행연구와의 비교가능성, 분석의 적실성, 분석의 목적 등을 고려하였다[1]. 실증분석을 위해 기존 행정학에서의 연구경향에 관한 연구 중에서 실증분석을 실시한 논문을 위주로 하였다

안병만(1986)에서는 연구 분야의 변화, 연구방법론의 변화, 이론적 성격의 변화 등을 분석하기 위한 분류기준으로 5년 단위 시기를 이용하였고[3], 김인철(1992)도 주된 분류기준으로 5년 단위의 시기를 이용하고 있다[4]. 하태권(1995)에서는 연구 내용 및 결과에 대한 고찰을 위해 논문의 발표 시기와 연구 방법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5]. 발표 시기는 10년 단위, 연구방법은 통계 분석, 설문조사, 사례분석, 병행의 네 가지를 주요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영균(1994)은 박사학위논문을 분석한 분류기준으로 수여년도, 학위수여대학교, 전공분야, 접근방법 등의 항목으로 나누어 조사하였으며, 통계분석기법으로는 빈도분석과 Chi-Square 분석을 활용하였다[6]. 권경득(1996)에서는 세 가지 연구방법, 즉 서술적 연구방법(문헌연구, 역사적 연구, 법·제도적 연구), 통계적 연구방법(설문조사 및 통계자료분석), 모의실험 및 수학적 모델을 이용한 방법이 이용되었다[7]. 이들 연구방법을 중심으로 분류기준을 살펴보면, 연구시대, 연구영역, 연구비 지원 여부, 연구 초점(이론지향적 또는 문제해결지향적) 등이 있다. 목진후·박순애(2002)는 정책학 연구경향에 대한 분석을 위해 출판년도 및 호수, 논문의 유형, 저자 수, 저자명, 소속기관, 직급, 주제별 분류, 성격별 분류, 연구목적, 정책단계별 분류, 분석방법, 분석기법, 자료수집방법, 자료종류, 분석단위를 분류기준으로 이용하였다[8]. 이병렬·박기관(2002)은

지방자치학 연구경향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위해 연구 영역, 시대, 연구 분야, 연구자 소속과 직급, 참여 연구자 수, 연구비 지원여부 및 출처, 연구방법(서술적 접근, 계량적 접근), 연구초점(규범/이론적, 문제해결/처방적), 사용된 통계분석기법(기술통계, 카이제곱 검증, 그 밖의 차이검증, 요인분석, 인과분석, 기타)을 활용하였다[9].

그리고 행정학에서 재난관리 분야의 학문적 연구 경향을 분석한 안혜원·류상일(2007)에서는 1991년도 이후 행정학계의 등재 후보지 이상의 6개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44편을 대상으로 하였다. 여기서는 출판년도(5년 단위), 연구자 수, 소속기관, 직위, 연구방법, 연구목적, 재난유형, 정책대상, 관리단계를 조사기준으로 설정하였다[10].

이에 본 연구에서는 행정학 분야에서의 이들 연구에 기초하여 위기관리 연구경향 분석을 위한 주요 분류기준을 ①논문게재시기(5년 단위) ②저자 수 ③소속 ④직위 ⑤학위 ⑥학위취득국가 ⑦연구 초점 ⑧위기관리 단계 ⑨이론적 논의 여부 ⑩선행연구 검토 여부 ⑪연구 접근법 ⑫연구비 지원 여부 ⑬연구대상 위기 ⑭연구방법 ⑮자료수집 방법 ⑯설문조사 대상 ⑰통계분석 기법으로 설정하였다[표 1] 참조.

표 1. 연구경향 분석의 조사기준

분류 기준	분류 내용
연도	1987~2007
시기	①1987~1992 ②1993~1997 ③1998~2002 ④2003~2007
저자 수	①단독 ②2인공동 ③3인공동 ④4인공동
논문집 성격	①전국학회지 ②지역학회지 ③대학논문집 ④기관논문집
제1저자 소속	①대학 ②대학연구소 ③국책/민간연구소연구소(원) ④정부기관 ⑤기타/모름
제1저자 직위	①전임교수 ②겸임교수/초빙교수/강사 등 ③연구원 ④공무원 ⑤기타/대학원생 등
제1저자 학위	①박사 ②박사과정 ③석사 ④석사과정 ⑤기타/모름
제1저자 박사 학위취득국가	①한국 ②미국 ③영국 ④일본 ⑤기타/모름
연구 초점	①이론지향 논문 ②문제해결/처방지향 논문 ③쟁점/현황 분석 논문
위기관리 단계	①예방/대비 ②대응단계 ③복구단계 ④기타 전체과정/법제도 등
이론적 논의	①있음 ②없음
기존 선행연구 검토여부	①있음 ②없음
연구 접근법	①행정제도 접근법 ②인지학습 접근법 ③의사결정 접근법 ④집행과정접근법 ⑤집행구조 접근법 ⑥기타

연구비	①연구비 지원 없음 ②외부연구비 지원 있음 ③대학연구비 지원 없음
대상 위기	①전통적 안보 위기 ②재난 위기 ③핵심기반 위기 ④국민 생활안전위기 ⑤기타/전체 위기
연구 방법	①문헌분석 방법 ②실증분석 방법 ③사례분석 방법 ④비교 방법
자료수집 방법	①설문조사 ②면접 ③공식통계 ④관찰 ⑤기존연구자료
설문조사 대상	①공무원 ②주민 ③전문가 ④기타
통계분석 기법	①기술통계(빈도수, 평균, 분산 등) ②카이제곱 검증 ③기타 차이검증(Z검증, T검증, F검증, ANOVA) ④요인분석 ⑤인과분석(상관관계 분석, 회귀분석, 경로분석) ⑥기타(시계열, DEA, AHP)

III. 실증 분석

1. 연구논문의 기초적 내용 분석

한국 행정학계에서의 위기관리에 관한 연구 경향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표 2] 참조). 첫째, 한국 행정학 분야에서의 위기관리에 관한 연구논문의 80% 이상이 1998년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1987년 이후 전체 20년 기간 동안에서 2003년~2007년 사이에 96편(67.6%)의 논문이 게재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87년 1편의 논문이 나온 이후 1989년과 1991년 각각 1편씩의 논문이 나왔고, 1994년(3편), 1995년(7편), 1996년(6편), 1997년(7편), 1998년(6편), 1999년(4편), 2000년(5편), 2001년(2편), 2002년(3편)에 불과하였다.

표 2. 연구논문의 기초 내용 기술통계량

분석 기준	연구 내용	논문편수(%)
논문 게재시기	1987~1992	3(2.1)
	1993~1997	23(16.2)
	1998~2002	20(14.1)
	2003~2007	96(67.6)
	계	142(100)
논문집 성격	전국학회지	74(52.1)
	지역학회지	3(2.1)
	대학논문집	50(35.2)
	기관논문집	15(10.6)
	계	142(100)
논문 편당 저자 수	단독 연구	93(65.5)
	2인 공동연구	35(24.6)
	3인 공동연구	7(4.9)
	4인 공동연구	7(4.9)
	계	142(100)
논문게재시 제1저자 소속기관	대학	105(73.9)
	대학연구소	18(12.7)
	국책/민간연구소	9(6.3)

	정부기관	5(3.5)
	기타	5(3.5)
	계	142(100)
논문게재시 제1저자 직위	전임교수	91(64.1)
	겸임/초빙교수/강사	6(4.2)
	연구원	27(19.0)
	공무원	6(4.2)
	기타	12(8.5)
	계	142(100)
논문게재시 제1저자 학위	박사	117(82.4)
	박사과정	20(14.1)
	석사	1(0.7)
	기타/모름	4(2.8)
	계	142(100)
논문게재시 제1저자 박사학위 취득국가	한국	77(54.2)
	미국	32(22.5)
	영국	2(1.4)
	기타/모름	31(21.8)
	계	142(100)

그러나 2003년 이후 연구 논문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2003년(12편), 2004년(19편), 2005년(14편), 2006년(19편)이던 논문이 2007년(32편)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2002년 태풍 루사, 2003년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와 태풍 매미 등으로 인해 재난관리의 중요성이 인식되었으며, 2003년 행정자치부에 국가재난관리시스템기획단이 설치되는 한편, 2004년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의 제정과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인 소방방재청 설립이 이루어진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학계에서도 2005년 위기관리 연구의 제학문적 연구공동체인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이 창립된 이후 한국위기관리

표 3. 연도별 논문 수

연도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논문수	1	0	1	0	1	0	0
비율	.7	-	.7	-	.7	-	-
연도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논문수	3	7	6	7	6	4	5
비율	2.1	4.9	4.2	4.9	4.2	2.8	3.5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논문수	2	3	12	19	14	19	32
비율	1.4	2.1	8.5	13.4	9.9	13.4	22.5
합계	논문수		142		비율		100.0

논집이 년 2회씩 발행된 것도 연구논문 증가의 요인으로 판단된다.

둘째, 연구논문이 게재된 논문집이 전국학회지인 경우가 52.1%(74편)로 나타났으며, 대학논문집의 경우는 35.2%(50편), 국책 및 민간 연구기관에서 발행하는 논문집에 실린 경우는 10.6%(15편)으로 나타났다.

표 4. 연구시기에 따른 논문집 성격

연구시기	1987-92	1993-97	1998-02	2003-07	계
전국학회지	1(33.3)	8(47.1)	11(45.8)	54(55.1)	74(52.1)
지역학회지	0(0)	0(0)	1(4.2)	2(2.0)	3(2.1)
대학논문집	2(66.7)	2(11.8)	10(41.7)	36(36.7)	50(35.2)
기관논문집	0(0)	7(41.2)	2(8.3)	6(6.1)	15(10.6)
계	3(100)	17(12.0)	24(100)	98(100)	142(100)

$\chi^2=22.728$ $df=9$ $p(<.05$ ($p=.022$)

셋째, 연구논문의 경우 단독연구의 경우가 65.5%(93편), 2인 공동연구는 24.6%(35편), 3인과 4인 공동연구는 각각 4.9%(7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논문 게재시 저자의 소속기관은 대학이 73.9%(105편)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학연구소 12.7%(18편), 국책/민간연구소가 6.3%(9편), 정부기관이나 기타가 각각 3.5%(5편)씩으로 나타났다. 2인 이상 공동연구의 경우에도 제1저자를 기준으로 하였음에도 대학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공동연구의 경우, 제2저자의 소속기관이 대학인 경우 29편, 대학연구소 8편, 국책/민간연구소 8편, 정부기관 1편으로 나타났으며, 제3저자의 소속기관이 대학인 경우는 9편, 대학연구소 3편, 국책/민간연구소와 정부기관은 각각 1편으로 나타났다. 제4저자의 경우에는 대학이 5편, 대학연구소 1편, 정부기관 1편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논문 게재시 저자의 직위 역시 대학의 전임교수가 64.1%(91편), 연구원 19.0%(27편), 대학의 겸임교수, 초빙교수, 시간강사 등의 경우는 4.2%(6편), 공무원 4.2%(6편), 기타 8.5%(12편)로 나타났다.

여섯째, 논문 게재시 저자의 학위는 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가 대부분으로 82.4%(117편)로 나타났으며, 박사과정이 14.1%(20편)으로서 전체 논문의 96.5%가 박사과정이상으로 나타났다. 연구논문에서 저자의 학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연구자정보 검색시스템을 활용하여 가능한 한 밝히려 노력하였다.

일곱째, 우리나라 행정학에서의 위기관리 연구논문을 게재하는 경우, 박사학위를 소지한 연구자의 경우 박사학위 취득 국가는 한국이 전체의 과반수인 54.2%(77편)로 나타났으며, 미국이 22.5%(32편), 영국 1.4%(2편)로 나타났다. 위기관리 연구에 있어서는 국내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연구자들이 위기관리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본 연구의 기점인 1987년 이후 국내에서 배출된 행정학 박사학위 중에서 27편이 위기관리 분야에서 나온 것으로부터도 알 수 있다. 특히, 2003년 이후 국내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위기관리 논문이 20편에 이르는 것을 고려하면, 2003년 이후 연구논문이 급증한 것이 연구자의 증가에도 기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2. 연구논문의 이론적 내용 분석

지난 1987년 이후 2007년까지의 연구논문을 분석해 본 결과, 이론적 내용 구성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특성이 나타났다. 우선, 전체 논문의 연구 지향성을 살펴본 결과, 이론 지향적인 논문이 24.6%(35편), 문제해결 및 처방 지향 논문이 52.1%(74편), 쟁점 분석 및 현황분석 지향 논문이 21.1%(30편)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행정학계에서의 위기관리 연구는 이론 지향적이기 보다는 문제 해결이나 처방을 제시하는 한편, 쟁점 및 현황을 분석하는 데 지향성을 둔 논문이 73.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논문의 구성에 있어서 이론적 배경이나 논의를 포함하는 경우가 83.8%(119편)에 이르고 있어서, 위기관리에 대한 연구가 시작된 지 오래되지 않았지만 연구논문으로서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이론적 논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위기관리 단계 모형 등과 같은 유사한 이론적 내용들이 많은 경우 이론적 배경으로 포함되고 있다는 점이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표 5. 연구논문의 이론적 내용 기술통계량

분석 기준	연구 내용	논문편수(%)	
연구 지향성	이론 지향	35(24.6)	
	문제해결/처방지향	74(52.1)	
	쟁점/현황분석 지향	30(21.1)	
	계	142(100)	
이론적 논의 여부	있음	119(83.8)	
	없음	23(16.2)	
	계	142(100)	
선행연구 검토 여부	있음	19(13.4)	
	없음	123(86.6)	
	계	142(100)	
연구대상 위기유형	전통적안보위기	4(2.8)	
	재난위기	106(74.6)	
	핵심기반위기	10(7.0)	
	생활안전위기	3(2.1)	
	기타	19(13.4)	
	계	142(100)	
위기관리 단계	예방/대비단계	8(5.6)	
	대응단계	15(10.6)	
	복구단계	3(2.1)	
	기타/전체	116(81.7)	
	계	142(100)	
연구비 지원 여부	있음	대학연구비	4(2.8)
		외부연구비	11(7.8)
	없음	127(89.4)	
		계	142(100)

셋째, 연구논문의 구성에 있어서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여부를 조사한 결과, 13.4%(19편)만이 논문에서 기존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86.6%(123편)는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가 없었다. 기존 선행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볼 수도 있지만, 향후에는 이에 대한 연구자들의 노력이 필요로 되는 부분이다.

넷째, 한국 행정학계에서의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는 위기 유형은 자연재난과 인적재난을 포함하는 재난위기가 74.6%(106편)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핵심기반위기 7.0%(10편), 전통적 안보 위기 2.8%(4편), 생활안전위기 2.1%(3편) 등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는 행정학 분야의 위기관리 연구자들은 다른 위기 유형보다는 재난위기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연구논문에서 주로 다루는 위기관리 단계를 조사해 보았다. 그 결과, 예방, 대비, 대응, 복구의 전체 단계를 포괄하여 다루거나 아예 다루지 않는 논문이 81.7%(116편)에 이르렀다. 위기관리 단계에 속하는 내용의 경우에도 대응단계에 초점을 두는 경우가 15편, 예방 및 대비 단계에 초점을 두는 경우가 8편, 복구 단계에 초점을 두는 경우가 3편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위기관리 연구에서의 연구비 지원 여부를 살펴보면, 연구비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가 89.4%(127편), 연구비 지원을 받은 경우는 10.6%(15편)으로 나타났다.

3. 연구논문의 방법론적 내용 분석

여기서는 행정학 분야에서의 위기관리 연구 접근법과 연구 방법 등을 살펴본다. 우선, 연구접근법으로는 이재은(2000)에 따라 크게 행정제도, 인지학습, 의사결정, 집행과정, 집행구조 접근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위기관리 연구에서 행정제도 접근법을 활용하는 경우가 27.5%(39편), 인지학습 접근법이 15.5%(22편), 집행과정 접근법이 9.9%(14편), 의사결정 접근법이 6.3%(9편), 집행구조 접근법이 4.9%(7편)로 나타났다. 이처럼 행정제도 접근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것은 위기관리 연구 초기에 위기관리 시스템의 정착을 위해 법적 측면과 제도적 측면에서 시스템 정비에 많은 관심을 지니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둘째, 각 연구논문에서 채택하고 있는 연구 방법에서는 문헌분석 방법이 가장 많은 75.4%(107편)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실증분석은 14.8%(21편), 사례분석은 5.6%(8편), 비교방법은 4.2%(6편)인 것으로 나타나 연구방법상에서 문헌분석방법의 활용이 가장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위기관리 연구가 초기 단계에서 주로 국내외 논문 및 저서에 대한 문헌분석 방법이 우선적으로 활용된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실증분석이 실시된 경우에도, 가설의 설정과 검증이 시도된 논문은 14.3%(3편)에 불과한 반면, 가설 설정이 없이 실증분석이 실시된 논문이 85.7%(18편)이었다.

넷째, 실증분석의 경우, 자료수집은 거의 대부분인 95.2%(20편)가 설문조사 방법을 통해 이루어졌고, 1편

만이 기존통계자료를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경우, 설문조사 대상자는 주민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40%(8편), 공무원 대상이 30%(6편), 전문가 대상이 25%(5편)이었다.

여섯째, 실증분석에서 주로 사용한 분석방법은 61.9%(13편)가 빈도분석, 평균, 분산 등을 위주로 한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28.5%(6편)는 AHP 기법을 위주로 하였다. 그리고 요인 분석이나 인과 분석이 일부 사용되었다.

표 6. 연구논문의 방법론적 내용 기술통계량

분석 기준	연구 내용	논문편수(%)
연구 접근법	행정제도접근법	39(27.5)
	인지학습접근법	22(15.5)
	의사결정접근법	9(6.3)
	집행과정접근법	14(9.9)
	집행구조접근법	7(4.9)
	기타	51(35.9)
계	142(100)	
연구 방법	문헌분석	107(75.4)
	실증분석	21(14.8)
	사례분석	8(5.6)
	비교방법	6(4.2)
	계	142(100)
실증분석 가설여부	있음	3(14.3)
	없음	18(85.7)
	계	21(100)
실증분석 자료수집 방법	설문조사	20(95.2)
	기존통계자료	1(4.8)
	계	142(100)
설문조사 대상자	공무원	6(30.0)
	주민	8(40.0)
	전문가	5(25.0)
	기타	1(5.0)
	계	20(100)
실증분석 주요분석 방법	기술통계	13(61.9)
	요인분석	1(4.8)
	인과분석	1(4.8)
	기타	6(28.5)
	없음	127(89.4)
	계	21(100)

IV. 결론

이 연구는 우리나라 행정학 분야의 연구 가운데서 위기관리 이론과 관련된 논문들의 연구 경향과 방향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1987년부터 2007년까지 한국위기관리논집 등에 행정학자들이 기고한 위기관리 논문 142편을 대상으로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행정학계에서 위기관리 이론 분야의 연구가 최초로 나온 것은 1987년이지만, 그것이 활성화되고 다양한 학자들을 중심으로 논의가 시작된 것은 2003년 이후임을 알 수 있다.

둘째, 연구논문이 게재된 논문집이 전국학회지인 경우가 52.1%로 나타났으며, 특히, 이는 2003년 이후로 갈수록 전국학회지에 게재하는 연구논문이 점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 연구의 경우에는 대학 논문집이나 연구기관 논문집 등에 기고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점차 전국학회지 기고 및 게재가 증가하였다.

셋째, 논문 게재시 저자의 직위 역시 대학의 전임교수가 64.1%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논문 게재시 박사학위 소지자가 82.4%로 나타났다. 위기관리 연구가 시작된 것이 얼마 되지 않은 것을 고려해 볼 때, 신진 연구자들보다는 기존 행정학 교수들을 중심으로 한 위기관리 연구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위기관리 분야로 박사학위를 받은 행정학자들에 의한 적극적인 연구 활동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되었다.

넷째, 우리나라 행정학계에서의 위기관리 논문의 연구 지향성을 분석해 본 결과, 이론 지향적인 논문보다는 문제 해결이나 처방을 제시하거나 쟁점 및 현황을 분석하는 논문이 73.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위기관리 연구의 현실적 필요성에 기인한 초기현상으로 파악된다. 향후에는 실제 현실적 문제 해결 능력의 향상을 위해서라도 이론적인 논의가 좀 더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섯째, 위기관리 연구가 시작된지 불과 20여년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논문에서 이론적 논의를 포함하는 경우가 83.8%(119편)에 이르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인

현상으로 보인다. 다만, 위기관리 연구논문의 13.4%(19편)만이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에는 기존 연구에 대한 검토를 기반으로 보다 발전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여섯째, 한국 행정학계에서의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는 위기 유형은 자연재난과 인적재난을 포함하는 재난 위기가 74.6%(106편)인 반면에 핵심기반위기(7.0%)나 전통적 안보 위기(2.8%), 생활안전위기(2.1%) 등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향후에는 국가 위기관리의 제반 위기에 대한 균형있는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일곱째, 위기관리 논문에서 채택하고 있는 연구 방법에서는 문헌분석 방법(75.4%)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증분석(14.8%)이나 사례분석(5.6%), 비교방법(4.2%) 등이 보다 더 분석 방법으로 사용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 행정학자들에 의한 연구논문을 대상으로 위기관리 연구의 경향과 방향성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위기관리 연구의 방향을 가늠해 보는 기반으로 삼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진행과정에서 연구자는 분석대상 기간이 짧고, 특히 대부분의 논문이 최근 5년 사이에 게재된 것으로 파악됨으로써 이 분석 결과를 기초로 일정한 경향을 파악하였다고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음을 한계점으로 밝힌다. 다만, 이를 통해 지금까지의 연구 경향을 살펴보고 향후 여기서 제시된 문제점과 미래 방향을 참조함으로써 보다 충실한 위기관리 연구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참고 문헌

- [1] 이재은, 한국행정학의 조직연구 경향 실증 분석, *한국조직학회보*, 제3권, 제2호, pp.1-26, 2006.
- [2] 김형렬, 정책집행에 있어서 위기관리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논집*(연세대), Vol.18, pp.65-87, 1987.
- [3] 안병만, 행정학보 속에 나타난 한국행정의 변화, *한국행정학보*, Vol.20, No.2, pp.359-373, 1986.

- [4] 김인철, 한국정책학 분야의 연구내용과 그 성격, *한국행정학보*, Vol.26, No.4, pp.1049-1066, 1992.
- [5] 하태권, 한국인사행정의 실증적 연구에 대한 고찰: 연구경향과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Vol.29, No.4, pp.1463-1483, 1995.
- [6] 이영균, 행정학 연구의 변천에 관한 소고: 박사학위논문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Vol.28, No.4, pp.1463-1479, 1994.
- [7] 권경득, 한국행정학의 연구경향에 관한 실증적 분석: 『한국행정학보』 기고논문(1967-1995)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Vol.30, No.4, pp.139-153, 1996.
- [8] 목진휴, 박순애, 한국정책학회보 10년의 발자취, *한국정책학회보*, Vol.11, No.1, pp.319-332, 2002.
- [9] 이병렬, 박기관, 한국 지방자치학 분야의 연구경향 분석: 『한국지방자치학회보』 기고논문(1989-2001)의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Vol.14, No.1, pp.23-41, 2002.
- [10] 안혜원, 류상일, 행정학에서 재난관리 분야의 학문적 연구경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7, No.10, pp.183-190, 2007.

<1987-2007 분석대상 위기관리 논문>

강용석(2005), 강용석(2006), 강용석·박동균(2007), 강재상·김재득(1997), 권건주(2003), 권건주(2005), 권욱(2005), 김경남·권건주·엄준식(2007), 김계원·서진완(2007), 김광주·이석형(1999), 김구(2003), 김근영·송철호·원준연(2002), 김덕준(2004), 김보현·박동균(1995), 김상돈(2003), 김상돈·안황권(2003), 김영규(1996), 김영규·임송태(1997), 김영수(1998), 김영평(1994), 김영평·최병선·소영진·정익재(1995), 김정규(2007), 김정식(2006), 김태운(2004), 김태운·여차민(2006), 김태진·이재은·정윤수(2007), 김판석·이재은(1999), 김형렬(1987), 김형렬(2005), 김홍희(2000), 남궁근(1995), 노춘희·송철호(1998), 노화준(1991), 류상일(2007), 류상일(2007), 류상일·안혜원(2007), 류상일·최호택(2004), 모창환(2004), 박광국(1997), 박광국·주호진(1999), 박동균(1995), 박동균(1998), 박동균(2000), 박

동균(2004), 박동균(2005a), 박동균(2005b), 박동균(2006), 박동균(2007), 박동균·이재호(2003a), 박동균·이재호(2003b), 박미옥(1996), 박석희·노화준·안대승(2004), 박용수(1999), 박종훈(2004), 박홍식·박용길(2003), 박홍운(1997), 방선영·이갑복·정양근·이재은(2007), 성기환(2004), 성기환(2005), 성기환(2006), 성기환(2007), 성기환·한승환(2007), 송문길·박종훈(2004a), 송문길·박종훈(2004b), 송재석(2007), 송철호(2004), 송철호·김근영·원준연(2003), 안경렬(2006), 안형기(2003), 안혜원·류상일(2007), 양기근(2004), 양기근(2005), 우동기(1996), 우동기(2003), 우동기·이정훈(1999), 유현정·이재은·류상일(2007), 윤종모(1996), 이상팔(1995), 이상팔(1996), 이상팔(1997), 이상팔(1998), 이영남(2004), 이원희(2007), 이은애(2006), 이은애(2007), 이익주(2003), 이재은(1997), 이재은(1998a), 이재은(1998b), 이재은(1999), 이재은(2000a), 이재은(2000b), 이재은(2000c), 이재은(2000d), 이재은(2001), 이재은(2002), 이재은(2003), 이재은(2004a), 이재은(2004b), 이재은(2005a), 이재은(2005b), 이재은(2006a), 이재은(2006b), 이재은(2007a), 이재은(2007b), 이재은·김점훈(2005), 이재은·김점훈(2007), 이재은·김점훈·김은정·이호동(2003), 이재은·김점훈·김은정·이호동(2004), 이재은·김점훈·류상일(2005), 이재은·김영평·정윤수(2007), 이재은·김영평·정윤수·김태진(2007), 이재은·양기근(2004), 이재은·양기근(2005), 이재은·양기근(2006), 이재은·유현정(2007), 이재은·유현정·안철현·정병윤(2007), 이재은·주덕규(2001), 이종열·김옥일(2004), 이종열·박광국·조경호·김옥일(2004), 이종열·박광욱(2007), 이종열·이영철(2007), 이형호·정성범(2006), 이호동(2006), 이호동·양기근(2004), 임양빈(1997), 장인봉(2002), 정광호·김철(2006), 정시구(2006), 정요안(2002), 정윤수(1995), 정익재(1994), 정익재·정창무(1996), 정주철(2006), 정준금(1995), 정준금·이채순(2007), 정진환(1997), 정진환(1997), 조호대(2003), 조호대(2005), 조호대(2006), 주호진·이종열·김옥일(2007), 진중순(2007), 차용진(2006), 채경석(2006), 최권중(2001), 최병선(1994), 최병학(2003), 최병학(2005), 최

병학(2007), 최병학·이재현(2006), 최용호(2006a), 최용호(2006b), 최진태(2007), 최호택·류상일(2006), 하규만(2005), 한세익(2002), 한형서(2007), 함성수(2006), 황윤원(1989).

<1987-2007 위기관리 행정학박사학위논문>

강용석(2007), 권건주(2003), 권오환(2005), 권 옥(2006), 김석곤(2006), 김종환(2005), 김철중(2007), 류상일(2007), 박동균(1996), 박종훈(2004), 신현식(1995), 양기근(2004), 여차민(2007), 염돈재(2002), 이영철(2007), 이재은(2000), 이정균(2004), 이정일(2007), 이창용(2004), 이채순(2007), 장석화(2002), 전형우(2006), 정기성(2001), 조호대(2003), 최대원(2004), 최용호(2005),

저 자 소 개

이 재 은(Jae-Eun Lee)

정회원



- 2000년 2월 : 연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행정학박사)
- 현재 :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 위기관리, 조직관리, 정책집행